

생체 신장 이식 후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외과학교실*

노 한 · 이세한 · 안규리 · 한진석 · 김성권 · 하종원* · 김상준* · 김연수

목적 : 생체 신이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체기증이 활발하지 않은 나라에서 중요한 신대체요법의 하나이다. 연자들은 생체 신이식 후 환자와 이식 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20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체 신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 449명 중 상세한 병력이 확인 가능한 4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혈연관계에 의한 기증이 319명이었고 비혈연관계에 의한 기증이 87명이었다. 수혜자의 생존율과 이식 신 생존율을 delayed graft function과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신부전, HLA 불일치, 혈연관계에 의한 기증여부, MMF 사용여부, FK506의 사용여부, 기증자와 수혜자의 성별, 기증자와 수혜자의 나이, 이식년도, cold ischemic time에 대해 분석하였다.

결과 : 1년과 5년, 10년의 환자 생존율은 각각 98.7%와 95.4%, 90.0%이었고, 1년과 5년, 10년의 이식 신 생존율은 각각 98.7%와 95.6%, 85.2%이었다. 이식 신의 projected graft half life는 20년 7개월이었다. 생명표법을 이용한 생존분석에서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delayed graft function과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신부전이었다. 그 외의 인자들은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. Cox 회귀분석을 통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delayed graft function과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신부전은 환자들의 장기생존에 영향을 주었다 (Odds ratio =5.03; $p < 0.001$, Odds ratio=5.6; $p = 0.002$). 이식 신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delayed graft function의 유무이었고 당뇨를 비롯한 그 외의 인자들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. Cox 회귀분석을 통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delayed graft function은 이식신의 장기생존에 영향을 미쳤다 (Odds ratio=3.44; $p = 0.002$).

결론 : Delayed graft function는 환자와 이식 신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었다.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신부전은 환자 생존율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신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최근 증가하는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신부전의 치료에 신이식도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.